

모든 비유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 관리(3)

- 모돈의 사료 섭취 -

현장을 방문하면서 늘상 느껴지는 부분중 하나가 규모의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각자의 농장 특성에 따라서 또는 관리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독특한 번식관리들을 하고 있었다.

일종의 know how 개념 이라고나 할까. 거기에는 대부분 잔기술에 의존하면서 임시 방편의 주관적인 성향이 강한 것도 무시못할 부분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가 양돈을 하면서 요소에 따라서 맥이란 것이 분명 있을 법한데 그것을 간과하고는 있지않을까. 의문을 가져본다. 지난호에도 언급되었던 돼지보는 안목을 키우는데 우선시해야 다변하는 양돈의 흐름에 보폭을 같이 할것이며 필자가 몇회에 걸쳐 유량의 복잡성을 다 다룰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몇가지를 대변하여 이번 호를 정리하려 한다.



이 승 종 대표
돈나라 양돈번식전문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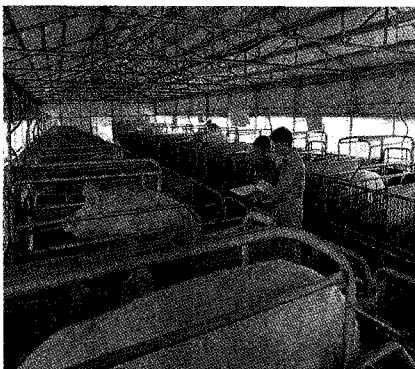
1. 관리 측면의 요소들

1) 저산차 모돈의 저유량과 난산의 빈도수 등을 인정한다

흔히들 저산차에서는 산자수, 이유두수, 난산, 재귀발정 등의 수식어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인정과 묵인이 되어지고 있는 편이다. 결코 소홀히 다룰수 없는 부분들이다.

정상적인 농장의 산차 구성비를 갖추고 있다면 비육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40% 정도의 비육돈들이 저산차, 즉 1~2산차에서 생산된 현실이고 보면 양돈의 맥(포인트)이 짙어진 셈이다.

40%에 가까운 생산의 주체가 된 모돈과 자돈이 농장 생



- # 도입돈과 갱신후보돈의 입식 체중을 낮추어 입식한다 (80~90kg사이나 그 이하)
- # 도입돈과 갱신후보돈의 입식시 철저한 병성 감정을 받는다(혈청 검사)
- # 혈청 검사후 이상돈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한다(도태나,그외)
- # 도입돈과 갱신후보돈을 필히 번식돈군과의 순차 및 접촉을 거친다
- # 도입돈과 갱신후보돈중 호흡기성 기질이 있는개체는 아껴줄 필요가 없다
- # 입식 및 선발후의 발정일 기록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반드시 작성)
- # 번식돈군의 백신 프로그램은 철저히 준수하며 6개월의 경과를 반드시 거친다
- # 임신돈의 사료 급이는 1일 1회가 저산차 모돈에 잇점이 많다(시설 고려)
- # 비타민 AD3E 제제는 호르몬이다 (저산차 모돈 포유 10일령째 주사)
- # 수입돈에 대해서 클로스트리듐중에 문제있다 (항생제 반응무)

산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며 수익과 직결된 여러 양상들이 벌어지므로 저산차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철저히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 진다면 이직률이 많은 양돈 현장에서 관리자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성이 변하는 예는 최소화 될 것이다.

2) 저산차 모돈의 유량은 산자수가 대변한다

아래의 특징에서도 알수 있듯이 호르몬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모든 관계 기관의 분비선이 관여되며 혈중 농도의 지배 아래에서 결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비유를 좋게 하기위한 관리는 너무도 많은 작용기전들이 보이지 않게 얽혀 있지만 시설, 관리도, 계절, 품종, 영양, 수분 등이 관여하므로 쉽게 행할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자.

그중에서도 저산차돈의 산자수가 문제시 되어 인정되어지고 각자의 접근 방식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접근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호르몬제의 투여에 대해서 대칭되는 이견들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호르몬제의 투여는 습관성이다. 막연히 나쁘다. 성과가 좋지 않다.

유전적으로 다산인자의 품종이 좋다” 이 점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특정 질병이 관여하지 않는 한 비유량

반동 (rebound)

외부에서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어느 시기에 호르몬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되먹이 체제가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잠복기가 있게 된다. 되먹이가 비효율적인 이기간 동안에는 되먹이 회복의 어느 limb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아서 그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결과 정상보다 다량의 호르몬을 생성하게 된다.

*되먹이란? : 세포의 반응이 그반응을 유발한 자극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feed back 현상이다.

입식 ← 발정 ← 수태 ← 배아사망 ← 산자수 ← 난산 ← 호르몬 → 유량 → 이유두수 → 재귀발정 → 차기 번식성적

의 많음은 산자수와 밀접히 비례하였으며 차기의 번식성적 효과도 비례하였다.

이유는 반동(rebound)의 효과에 있었다. 저산차돈의 산자수를 늘리기 위한 일환을 각자에게 묻는다면 천편일률적인 그동안 익히 접했던 사고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편이긴 하나 반동(rebound)의 효과를 후보돈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행하였을 때는 유량과 차기성적의 기대를 해봄직하다.

3) 계획적인 과배란을 유도하고 동기화를 목적으로 저산차에 시도하는 호르몬제 투여는 유효하다고 할수 있으나 무발정돈의 처지에는 원인제공의 규명 곧 관리측면의 요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2 영양 측면의 요소들

1) 유량에 관여하는 부분은 열을 다스려야 한다.

계절적인 열에 의한 저해요인이나 질병과 사료 섭취후 체내의 이용경로에 따라서 열이 발생하고 분만 전후로의 열발생은 더욱 중요하다.

위의 열기중 사료섭취가 손쉽게 현장에서 접근할수 있는 관리 방법이므로 우선 우리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모돈의 체내에서 실제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백질보다는 체내의 단백질 합성을 위한 필수 아미노산이 절실히 필요한 점이다.

단백질이 높은 사료는 오히려 열생산을 가중시키고 동반하여 포유돈의 사료 섭취량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저산차에서는 산자수, 이유두수, 난산, 재귀발정 등의 수식어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인정과 목인이 되어지고 있는 편이다. 결코 소홀히 다룰수 없는 부분들이다. 정상적인 농장의 산차 구성비를 갖추고 있다면 비육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40% 정도의 비육돈들이 저산차, 즉 1~2산차에서 생산된 현실이고 보면 양돈의 맥(포인트)이 짙어진 셈이다. 40%에 가까운 생산의 주체가 된 모돈과 지돈이 농장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으며 수익과 직결된 여러 양상들이 벌어지므로 저산차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2) 열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만을 전후로 지방을 모돈에게 급여하여야 한다.

이 점은 항생제보다 더욱 유량 측면에서는 영향력에서 앞선다고 보여지며 사료제조 회사에 요구할 몫이 아니고 각자 농장에서 보상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료영양소가 체내에 대사 에너지로의 전환시 단백질의 높은 함량이 열로 가중되며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열은 극히 미비하다고 할수있어 섭취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 감소를 지방을 보충하여 주므로써 분만 전후구간에서 열발생이 가장 적은 형태를 취하게 되어 즉시 이어지는 많은 양의 사료섭취를 극대화 시키

는 정거장인 셈이다.

3) 속효성 해열제를 잘 활용하면 모든 것이 증가한다.

비교적 모든의 적신호는 사료섭취 여부에 의해서 대변되어 질수 있으나 대부분이 열의 증가로 인한 외부 표출이다.

값싼 몇 백원의 해열제는 물론 비싸고 걸치 장이 좋아야 애용되어지는 시대이기는 하나 약물의 작용은 투여의 시기와 효과에 있다고 할수 있으며 어떤 것은 속효적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어서 값과는 비교되어질 필요가 없어 진다.

3. 정리하면서

모든의 비유장애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지면이나 여러곳의 눈치 보기식으로 위축된 부분이 있었지만 일부분이나마 지면을 빌어 공유할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하면서 향후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더욱 접근된 발표를 준비하도록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젓(유량)에 관해서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것과 실제로 몸으로 부딪쳐 알아가고 터득하는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유량은 화학적인 과정 중의 하나로서 노력을 경주할 매력있는 숙제 거리 이기도 할 것입니다. **양동**

필자 연락처: 011-540-7884, e-mail : leesj0571@hanmail.net

생석회 · 소석회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총란 및 병원균 살균
- 유기질 분해촉진
- 산성 토양 개량 (pH안정)

영월 석회 공업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
전화: (033)372-5837, 5618 / (033)372-5296, 6878
FAX: (033)372-5889 야간: (033)372-5293